

해남군, 예비비 투입해 발빠른 방제 약제 공급

해남군은 벼멸구 방제 약제를 조기에 확보해 농가에 공급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최근 벼멸구 방제 약제 2만2천병을 14개 읍면에 배부 완료했다. 친환경 면적을 포함해 해남군 전체 벼 재배면적인 1만 9,727ha에 방제가 가능한 양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예비비 7억여만원을 투입, 전역 군비로 약품을 구입해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19일까지 방제 약제를 배부하고, 약제를 공급받는 즉시 방제를 실시해 20일에는 방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전 직원을 동원해 읍면 농가 현장에 대한 예찰과 방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의 신속한 대응은 8월 15일부터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예찰방제단을 운영, 벼농사 후기 병해충을 중점 예찰해 온데 이어 9월 들어서도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벼멸구 증가 추세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방제 대책을 마련해 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연일 33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벼멸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예찰에 따라 17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8일에는 명현관 군수가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긴급 방제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전 면적에 대한 방제 약제 공급이 결정됐다.

현재 해남군 관내 벼 재배면적 1만 9,727ha 중 약 5% 가량인 985ha에서 벼멸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해 해충의 세대 교체주기가 4일정도 단축되면서 벼멸구가 다량으로 증식되었으며, 당분간 고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확기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군 전 직원이 농가와 읍면 예찰을 실시하고, 발견 시 즉시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조생종 및 중생종 등 수확기에 접어든 벼는 조기 수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최근 벼멸구 방제 약제 2만2천병을 14개 읍면에 배부 완료했다. 친환경 면적을 포함해 해남군 전체 벼 재배면적인 1만 9,727ha에 방제가 가능한 양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예비비 7억여만원을 투입, 전역 군비로 약품을 구입해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장흥-직능·사회단체 간담회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6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1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직능·사회단체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재향군인회,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조사료경영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별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이번 자리는 안보교육 지원, 지방소멸대응 공공인대주택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 확보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출산장려 및 주거정책 지원, 낚시산업 등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하계조사료 재배 확충 등 분야별 군정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군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평소 군정 참여의 기회가 적은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보성군,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 성료

보성군은 최근 ‘자연이 숨 쉬는 보성, 천년의 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2회 보성세계차박람회’와 함께하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유산축제에서는 ▲학술세미나 ▲제12회 세계차품평대회 ▲티아트페스티벌경연 ▲K-water와 함께하는 축하공연 ▲황금 찾아 찾아 유산길 걷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황금 찾아 찾아 유산길 걷기 체험은 넓게 조성된 차밭을 거닐며 지친 일상에서 휴식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차밭 이랑에 숨겨진 보물찾기를 통해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게 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의 차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았던 5개 부분의 품평과 경연대회는 농림축산부장관상 1점, 전라남도지사상 3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상 2점, 보성군수상 24점, 보성군

교육지원청장상 8점 등 38점의 상이 시상됐다.

올해 12번째 열린 세계차품평대회는 ▲녹차전통차 금상 보성청우다원 ▲녹차기계차 금상 보향다원 ▲황차 금상 영천다원 ▲홍차 금상 명홍 ▲청차 금상 몽중산다원이 수상했다.

제10회 대한민국티블렌딩대회 금상은 한은정, 티아트 페스티벌 경연은 금상 조영아·이국희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생차예절경연대회는 ▲초등부 금상 백두산 ▲중·고등부에는 금상 안연우 학생이 경연대회 우수자로 뽑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우리의 전통 농어업유산은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오랜 세월 지켜온 우리의 전통과 농어업유산을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중수 기자

완도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성료

완도군은 최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생활문화센터에서 여성단체 회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손정희) 주관으로 개최된 기념행사는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양성평등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는 공연을 시작으로 여

성단체 가수단 입장, 유공자 표창, 행복복지기금 전달, 현장 낭독,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완도읍의 문선례 씨를 비롯한 13명에게 군수 표창을,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위상을 드높인 회원에게 봉사패를 수여했다.

부대 행사로 완도군 가족센터와 전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완도경찰

서 등 4개 기관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여성 취·창업과 아이 돌봄 사업 등을 안내하고,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를 포함한 폭력 예방 캠페인도 실시했다.

손정희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양성평등의 가치이다”면서 “남성이어서, 여성이어서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성평등한 완도 실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고흥, 선배기업 멘토링 호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선·후배 청년 기업이 함께하는 홈 커밍데이를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는 고흥군이 전남창조기업혁신센터에 위탁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와 청년인구 유입을 목표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1명의 창업 청년을 발굴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홈 커밍데이는 17개 업체가 참여하여 창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 기업의 성공사례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중수 기자

진도군,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진도군은 지난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귀농·귀촌 관련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농업의 최신 트렌드와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진도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이사비 지원 등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 전시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또한, 9월 28~29일 양일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처음 열리는 ‘진도의 날 행사’ 홍보로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특히,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개인 상담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증정해 방문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장은 “귀농·귀촌의 최적지인 진도를 알리고 도시민을 유치해 진도군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평 기자

